

# 주거이전과정의 가족구성원 간 영향력

– 서울시 아파트거주자를 대상으로 –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in the Process of Residential Mobility  
– Focusing on Residents in Apartment Buildings in Seoul –

김 성 진\* · 장 희 순\*\* · 방 경 식\*\*\*

Kim, Sung Jin · Jang, Hee Soon · Bang, Kyung Sik

## 目 次

I. 서 론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연결정도 중앙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인접 중앙성
II. 이론 고찰	3.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매개 중앙성
1. 가족 간 영향력관계 이론	4.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위세 중앙성
2. 자원이론과 주거이전 과정에서의 영향력	V. 결론 및 시사점
3.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	〈abstract〉
4. 선행연구	〈참고문헌〉
5. 분석모형	
III. 분석설계	
1. 모집단과 표본	
2. 표본의 통계량	
3. 측정변수와 측정방법	

## ABSTRACT

### 1. CONTENTS

#### (1) RESEARCH OBJECTIVES

With a focus on married couples residing in apartment building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differently the social relationships of family members would work in every phase of decision making for residential mobility.

\* 주 저 자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sungjinag@hanmail.net

\*\*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학술박사(부동산학), kobejhs@kangwon.ac.kr

\*\*\*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행정학박사, silverius@empal.com

▷ 접수일(2014년 1월 20일), 수정일(1차 : 2014년 2월 18일, 2차 : 2014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2014년 5월 20일)

### (2) RESEARCH METHOD

The behavioral science approach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used for this study. Those methods were selected, as the theory of behavioral science is effective in explaining residential mobility behavior and the statistical approach can analyze why families decide to change their residence. For statistical analysis, a statistical software called UCINET 6 for Windows was used.

### (3) RESEARCH FINDINGS

It was found out that when it comes to making a decision on residential mobility, a husband or the parents of his wife first comes up with an idea to change the family's residence, while the wife and her parents work hard to search for a new residence with a priority on the care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grandchildren. On the other hand, a husband and his parents were found to make a final decision on residential mobility.

## 2. RESULTS

Government policies to support the housing of newly-wed coupl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creating sufficient day-care facilities in a new housing complex and providing consistent support to those facilities merits strong conside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boost housing demand among newly-wed or young couples, it would be worth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consider marketing strategies targeting both those couples and their parents, as it would help turn their potential demand into an effective one.

## 3. KEY WORDS

- residential mobility, decision-making processes, influence of family members, centrality, social network
- 
- 

---

---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거주자중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전 결정시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남편 및 처가가 주거이전을 제안하되, 자녀를 위하여 주거이전 대상 주택을 아내 및 처가가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이전 결정은 본가와 남편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양육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를 자녀

교육과 자녀발전으로 보는 부모-자녀 동일체의식으로 자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양육 및 교육의 중심인 아내와 손자녀 양육과 가사지원을 하는 처가가 거주할 주택을 탐색하되 경제적 지원과 주택마련은 본가 및 남편이 책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주거지원 정책 강화와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보육시설공급과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 등의 신규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함께 주택수요를 유효수효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함께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 가족구성원의 영향력, 중앙성, 사회연결망

## I.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상품 중 주택은 일반상품에 비해 연소득 대비 가격(PIR)<sup>1)</sup>이 높아 거래 빈도가 낮으며, 거래 후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선택요인<sup>2)</sup>도 다르기 때문에 구매의사결정시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변화하여 주택 구입(소유 및 임차)시 그 결정과정이 더 복잡해졌다. 예로 부모의 의존도가 점증하고 있어 본가 및 처가 부모의 영향력도 작용하는 점이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들은 가족구성원 간 의사결정과정의 역학관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동산 분야에서 이

러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편은 아니다.<sup>3)</sup> 부동산의 연구접근방법이 물리적인 측면이나 경제·법률측면에 치우치고 심리학이나 사회학측면의 접근이 도외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을 매개로 하는 가족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관계는 부동산학이 간과 할 분야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동산현상<sup>4)</sup>은 부동산행위<sup>5)</sup>를 하는 부동산인간<sup>6)</sup>의 의사결정행태의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논자들은 부동산행위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여<sup>7)</sup> 주거이전행위가 주거문화<sup>8)</sup>의 공명행위<sup>9)</sup>임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접근방법으로 논의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논의가 주택구매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생

1) PIR(Price-to-Income Ratio= 중위 주택가격/중위 연소득). 수도권의 경우 2012년 현재 6.7배(국토교통부,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p.68.). 마강래·안아림, "지역간 PIR 편차의 시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49집, p.293.

2) 성연동, "한국인의 인구구조변화와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p.229.

3) Deborah S. Levy · Christina Kwai-Choi Lee,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on housing purchase decisions", *Journal of Property Investment & Finance*,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04, Vol. 22, No.4, pp.320~338. 조광행, "부동산마케팅에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9, 제39집, pp.143~160.

4) 부동산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내린 의사결정행위의 집합이 외면으로 드러난 모습(방경식·장희순,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2012, p.127).

5) 부동산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상계서, p127).

6) 어떤 지역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하는 인간(상계서, p.60).

7) 상계서, pp.127~141.

8) 김동진 등, "제주도·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의식구조 분석",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2008, 제16권 제2호 pp.29~31.

9) 부동산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이 공조되어 상호 호감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상계서, p.132).

산, 판매, 구매 등에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연구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에 관심을 둔 것을 주택만으로 한정한 경우는 희소하고,<sup>10)</sup> 다른 소비재에 포함된 변수로서 연구하였거나,<sup>11)</sup> 소비재 또는 여행 등 주택을 제외한 연구에 치중하였다.<sup>12)</sup> 한편 영향력 행사자도 종래 부부 중심<sup>13)</sup>에서 자녀의 역할증대를 반영하여 가족공동의사결정방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sup>14)</sup>

이에 본 연구는 종전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본가 및 처가 부모를 변수로 추가하여 아파트 거주자 중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전 결정시 의사결정단계별로 가족구성원 간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파트공급관련 주택정책과 타깃 마케팅 대상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접근방법은 행태 과학적 접근과 통계학적 접근이다. 주거 이전의 행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행태과학의 이론을 원용하는 것이 유효하며, 주거이전 경험자의 의식을 분석하려면 통계학 접근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통계프로그램은 UCINET 6 for Windows를 이

용하였다. 연구범위는 주거이전 시 의사결정 단계별 가족구조 내에서 가족구성원이 갖는 위치와 영향력에 한한다.

## II. 이론 고찰

### 1. 가족 간 영향력관계 이론

가족 간 영향력관계를 규명한 이론은 다양하다. 첫째가 블러드와 울프(Blood and Wolfe)에 의해 개발된 자원이론이다. 두 사람은 의사결정에 미치는 힘은 개인이 결혼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고 의사결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자원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의사결정에 미치는 가족구성원의 힘이나 영향력은 더 커서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sup>15)</sup> 자원은 개인적 특성, 물질적 소유, 관계적 특성, 권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sup>16)</sup> 애정, 지위, 정보, 금전, 물품과 서비스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하며,<sup>17)</sup> 교육, 수입, 직업, 의사결정능력, 능력, 개인의 매력도, 가정에서의 여러 역할의 성과, 동반자적 능력, 성생활 능력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sup>18)</sup> 이 이론의 한계점은 의사결정에서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역할이 배제되는 점이

10) Deborah S. Levy · Christina Kwai-Choi Lee, *op.cit.*, pp.320~338.

11) 두경자·정혜선, “구매의사결정 과정시 가족참여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1, 제5권, pp.15~31. 이한준 등, “대가족 제도에서 노부모의 구매영향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한국소비자학회, 2010, 제21권, pp.395~416.

12) 채신석 등,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의식 구매결정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영향력과 외식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관광식음료경영연구, 한국관광식음료학회, 2006, 제17권, pp.1~20.

13) 장광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족성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아파트거주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2.

14) 채신석 등, 전개논문, pp.1~20, Deborah. S. Levy · ChristinaKwai-Choi Lee, *op.cit.*, pp.320~338.

15) 강석후, “가족의 구매의사결정에서 성별역할관념론과 자원이론에 대한 연구”, 한국마케팅저널, 한국마케팅학회, 2001, 제3권, p.4.

16) 정기원,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001, 제24권, p130.

17) 김현주 등, “자녀의 성적이 어머니와 자녀의 교환관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제21권, pp.118.

18) 강석후, 전개논문, p.5.

다.<sup>19)</sup> 그러나 부모 자녀 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자원까지 포함하며,<sup>20)</sup>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로 규정해 온 한국 부모의 자기희생적 이데올로기<sup>21)</sup>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sup>22)</sup> 둘째 교환이론이다. 교환이론은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상이 비용보다 많을 경우에는 관계를 지속하지만 반대로 비용이 보상보다 많이 든다고 생각되면 결국 관계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sup>23)</sup>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는 교환관계의 균형이나 호혜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위적으로 해체될 수 있으며, 시부모와 며느리관계 같이 사회적 규범에 의해 역할과 책임이 뚜렷한 관계거나 친정부모와 딸과의 관계와 같이 정서적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교환이론의 한계이다.<sup>24)</sup> 세 번째로 기타 성이데올로기론, 시간제약이론, 성별역할지향론 및 사회적 권리이론이 있다.<sup>25)</sup>

## 2. 자원이론과 주거이전 과정에서의 영향력

가족관계는 가족 간에 보상이 비용보다 많을 경우 뿐만 아니라 비용이 보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라도 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혈연적이며 정서적·규범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교환이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도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원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 3.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

주거이전 및 주거선택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의사결정과정의 단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여 일치된 컨센서스는 없다.<sup>26)</sup>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구매의 사결정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되었다.<sup>27)</sup> 그 이유는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평가하게 되어 대안평가단계는 정보탐색 단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sup>28)</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거이전 제안단계, 주거탐색 단계 및 주거선택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 4. 선행연구

가족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부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관하여 이루어지거나,<sup>29)</sup> 자녀의 영향력이 중요시 되면서 자녀의 영향력을 규명하거나,<sup>30)</sup> 자녀를 포함한 전체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sup>31)</sup>가 주요한 연구대상이었

19) 김복순 등, “가족여행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영향력”,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2005, 제29권, p.220.

20) 김현주, “어머니와 자녀간 자원교환과 관계만족도: 노후 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한국여성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05, 제10권, p.527.

21) 김선태 · 송명규, “베이비부부의 은퇴와 아파트가격의 규모탄력성”,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4집, p.100.

22) 최혜지,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2004, 제24권, p.42.

23) 신명일 · 김우식,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대처전략이 부부의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제12집, p.316.

24) 조병은 · 신화용,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1992, 제12권, p.85~86. 김현주, 전계논문, p.527.

25) 강석후, 전계논문, pp.3~4. 김복순 등, 전계논문, p.220.

26) Deborah S. Levy · Christina Kwai-Choi Lee, *op.cit.*, p.323.

27) 채신석 등, 전계논문, p.9.

28) Harry L. Davis · Benny P.Rigaux,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74, Volume 1, Issue 1, p.52.

29) 장광수, 전계논문,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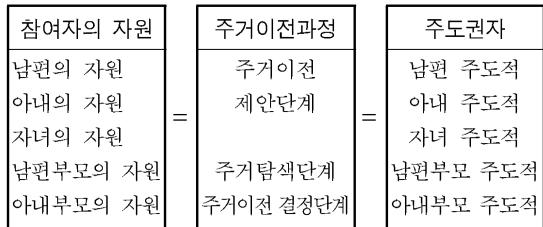
다. 그외 노부모가 동거하는 대가족하에서 노부모의 구매영향력 및 그 영향력에 효과를 미치는 원인을 연구한 경우도 있다.<sup>32)</sup> 한편 구매대상 제품에 주택을 포함하여 연구하거나,<sup>33)</sup>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하거나,<sup>34)</sup> 여행 및 외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sup>35)</sup>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sup>36)</sup> 이에 본 연구는 구매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핵가족의 구성원인 남편, 아내 및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거나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이 거주하며 노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 남편과 아내의 부모를 포함하였으며 종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사회연결망분석을 한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 5. 분석모형

주거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자원은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입, 직업, 의사 결정능력, 가정에서의 역할 등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자원은 부모에게 양육의 기쁨, 부모에게 애정과 존경, 부모의 영향력 발휘의 기회부여 등이 있으며 남편 및 아내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적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자원을 보유한 가족구성원들이 자원의 양에 따라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도권자가 결정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

여 주도권자를 파악한다.

〈그림 1〉 분석모형



## III. 분석설계

### 1.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은 서울지역 아파트 거주가구 중 결혼한 가구이다. 2012년 말기준 가구 수 1,463,452중 배우자 있는 가구비율(66.6%)<sup>37)</sup>을 적용하여 974,659가구를 모집단으로 추정하였다. 표본은 1,101가구로 오차는 95% ± 2.95이다. 설문지는 서울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나누고 가구구성 비율로 할당하여 배포하였으며, 표본 추출방법은 충화 편의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2013년 7월 1일~7월 8일(8일간) 사이에 선행조사를 하였는데 50명에게 이메일 및 직접면접 설문하여 질문의 응답 적합성, 질문지의 구조화 등을 확인하여 요인 항목이나 질문을 조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7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1,700부를 남·여 직장인에게 배포하

- 30) 김복순 등, 전계논문, pp.215~234, Gurvinder S. Shergill · Harjit Sekhon · Min Zhao, "Parents' perception of teen's influence on family purchase decisions: A study of cultural assimil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2013, Vol. 25 issue1, pp.162~177.
- 31) 강석후, 전계논문, pp.1~29, 채신석 등, 전계논문, pp.1~20.
- 32) 이한준 등, 전계논문, pp.395~416.
- 33) 상계논문, pp.395~416, 두경자 · 정혜선, 전계논문, pp.15~31.
- 34) 강석후, 전계논문, pp.1~29., ÉVA PÓLYA, "Purchas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oles within the family", Szent Istvá University Management and Business Administration Doctoral School, Theses of PhD Dissertation. 2012. p.26.
- 35) 채신석 등, 전계논문, pp.1~20.
- 36) Deborah S. Levy · Christina Kwai-Choi Lee, *op.cit.* pp.320~338.
- 37) 통계청 보도자료,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부문)", 2011. 7. 7.

여 폐일, 인터넷, 직접배포 등으로 설문하였다. 이 중 회수한 설문지는 1,200부이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한 99부를 제외하였다.

## 2. 표본의 통계량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61.6%)이 여성(38.4%)보다 많았고, 남편의 연령은 40대(35.8%), 30대(30.8%), 50대(25.2%), 60대 이상(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는 40대(36.9%), 30대(34.1%), 50대(19.3%), 60대 이상(3.4%) 순으로 나타났다.<sup>38)</sup>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501만원초과 천만원이하(46.7%), 301만원~500만원(41.9%) 순이었다. 남편직업은 사무직(55.6%), 영업직(20.9%) 순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38.1%), 사무직(35.2%), 영업직(14.6%)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2년미만(30.1%), 2년~4년(28.0%), 4년~6년(19.1%), 6년 이상(2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소유(51.6%), 전세(41.9%) 순이었다.

## 3. 측정변수와 측정방법

측정변수는 〈표 2〉와 같이 크게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주거이전 제안주도자, 주거이전 정보탐색 주도자, 주거이전 의사결정 주도자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주거이전과정 참여자(측정변수)의 주거이전 의사결정단계별 주도 정도를 설문하여 리커드 5점척도(강력주장함, 주장함, 보통, 주장하지 않음, 전혀 주장하지 않음 등)를 사용하였다.

주거이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를 파악하면 가족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 특히 남편 및 아내의 부모와 남편, 아내와 자녀 등 구성원의 위치와 다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표 1〉 통계량

항 목	구 분	빈 도		%		
		빈 도	%	빈 도	%	
성 별	남 성	678	61.6			
	여 성	423	38.4			
	합 계	1,101	100.0			
한 달 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23	2.1			
	201-300만원	103	9.4			
	301-400만원	216	19.6			
	401-500만원	245	22.2			
	501-1천만원	429	39.0			
	천만원 초과	85	7.7			
	합 계	1,101	100.0			
연 령		남 편		아 내		
		빈 도	%	빈 도	%	
	20대	25	2.3	70	6.4	
	30대	339	30.8	375	34.0	
	40대	394	35.8	406	36.9	
	50대	278	25.2	213	19.3	
	60대 이상	65	5.9	37	3.4	
직 업	합 계	1,101	100.0	1,101	100.0	
		남 편		아 내		
		전문직	47	4.3	33	3.0
		경영 관리직	48	4.4	10	.9
		사무직	612	55.6	388	35.2
		영업직	230	20.9	161	14.6
		기술직	91	8.3	10	.9
주거이전 제안 정보탐색 주도권 행사	전업주부	-	-	419	38.1	
	기 타	73	6.5	80	7.3	
	합 계	1,101	100.0	1,101	100.0	

〈표 2〉 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변수	측정내용	측정방법
주거이전 제안 정보탐색 주도권 행사	남 편	- 주거이전 제안주장 정도	리커드 5점척도
	아 내	- 주거이전 정보 탐색 노력 정도	
	자녀	- 주거이전 결정 영향 정도	
	남편의 부모	- 주거이전 결정 영향 정도	
	아내의 부모	- 주거이전 결정 영향 정도	

데에는 사회연결망분석이 유용하다.<sup>39)</sup>

38) 정부균 등, “가구유형별 구분에 의한 주택수요 예측”,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51집, p.9.

39) 장호, “사회연결망분석의 전개과정 및 기본원리”, 언어정보,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997, 제1호, p.62.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1. 의사결정 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연결 정도 중앙성

사회연결망에서 중앙성 개념은 소시오그램<sup>40)</sup>의 '스타(star)'의 개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누가 한 집단에서 가장 유명한가? 혹은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sup>41)</sup> 이러한 중앙성 개념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sup>42)</sup> 연결망 내에서 중앙에 위치한 행위자는 그 연결망 내에서 타 행위자와 가장 많은 연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따라서 가족구성원내의 관계 중앙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결정도의 중앙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연결정도는 한 가족구성원이 맺고 있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숫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는 가족구성원의 정보교류 정도의 고저를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지표이다.<sup>44)</sup>

주거이전 제안단계의 연결정도 중앙성은 남편·자녀·처가의 연결정도 중앙성(100.0%)이 아내나 본가(75.0%)보다 높다. 주거이전 정보답색단계에서는 자녀가 가장 높고(100.0%), 그 다음이 아내 및 처가(75.0%), 본가 및

남편(50.0%)순이다. 마지막으로 주거이전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100.0%)가 본가 및 남편, 아내 및 처가보다 높다.

이처럼 연결정도 중앙성분석에서 자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자신의 혈육 즉 분신으로 간주하는 자녀의 자본<sup>45)</sup>과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를 자녀교육과 자녀발전으로 보는 경향<sup>46)</sup>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보는 동일체의식,<sup>47)</sup> 나아가 조부모-부모-자녀간 동일체의식<sup>48)</sup>에 기인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가족구조가 자녀중심구조<sup>49)</sup>로 변한 것도 자녀의 연결중앙성이 높은 이유이다.

주거이전 제안의 연결 중앙성을 보면 아내가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의 중심이 되고,<sup>50)</sup> 처가가 이사, 손자들의 교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sup>51)</sup>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육아 및 살림을 친정어머니가 대신 맡게 되거나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다.<sup>52)</sup> 이는 본가와 아내의 관계는 규범적 관계인 반면 처가와의 관계는 원가족의 애정을 기초로 형성된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 40) 소시오그램은 한 연결망 내에서의 각 행위자와 그들 사이의 실제적 연계를 나타내주는 이차원적 그림을 가리킨다(장호, 전계논문, p.70).
- 41) Hanneman, Robert A. and Mark Riddle,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2005, p.61.
- 42)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2013, p.65.
- 43) 장호, 전계논문, p.77.
- 44)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2013, p.110.
- 45) 김현주, 전계논문, p.527.
- 46) 김현주 등, 전계논문, p.121.
- 47) 방희정,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00, 제6권, p.56, 김현주·이여봉,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자녀 교환관계 유형과 예측요인", 한국사회학회, 2012, 사회학대회논문집, p.558.
- 48) 방희정, 전계논문, p.52.
- 49) 방희정, 전계논문, p.51, 김미란 등, "간호학 관점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동향", 아동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 2010, 제16권, p.250.
- 50) 이경혜, "사회변화와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부모·자녀건강학회, 2002, 제4권, p.43, 박종서,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제199호, pp.29~33.
- 51) 유연지 등,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08, 제13권, p.435.
- 52) 유연지 등, 전계논문, p.446, 이한준 등, 전계논문, p.40, 김은정, "맞벌이가정 손자녀 양육지원 조모와 취업모간 관계유형 및 관계의 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2013, 제40권, p.112.

다.53) 따라서 부모자녀의 동일체의식에 따라 자녀를 위해 남편과 양육보조자인 처가가 주거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보탐색 단계에서는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의 중심인 아내와 손자녀 양육과 가사지원을 하는 처가가 주거할 곳을 탐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이전 영향력은 본가가 재산 또는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up>54)</sup> 남편의 영향력은 수입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sup>55)</sup> 남편이 전체 결혼비용 중 75.%를 부담하는 주택마련비용 부담의 중심<sup>56)</sup>이란 연구결과로 뒷받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이전 의사결정단계별 연결 중앙성의 정도가 가족구성원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통적 의사

결정 연구에 있어서 구매결정시 가족의 역할 구조는 의사결정의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sup>57)</sup>로 정당성이 입증된다.

## 2.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인접 중앙성

두 번째로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전체 중앙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족구성원이 가족 간에 정보교류에 대한 통제 능력을 표현하며 이는 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가족구성원을 잇는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sup>58)</sup> 인접중앙성은 어떤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과 관계가 밀접하다면 정보, 권력, 영향력 등에 대한 확

〈표 3〉 의사결정단계별 연결정도 중앙성

주거이전 제안			정보탐색			영향력		
1 Degree	2 NrmDegree	3 Share	1 Degree	2 NrmDegree	3 Share	1 Degree	2 NrmDegree	3 Share
1. 남편 4.0	100.0	0.222	3. 자녀 4.0	100.0	0.286	3. 자녀 4.0	100.0	0.286
3. 자녀 4.0	100.0	0.222	2. 아내 3.0	75.0	0.214	4. 본가 3.0	75.0	0.214
5. 처가 4.0	100.0	0.222	5. 처가 3.0	75.0	0.214	1. 남편 3.0	75.0	0.214
2. 아내 3.0	75.0	0.167	4. 본가 2.0	50.0	0.143	2. 아내 2.0	75.0	0.143
4. 본가 3.0	75.0	0.167	1. 남편 2.0	50.0	0.143	5. 처가 2.0	50.0	0.143

53) 김은정, 전계논문, p.112.

54) 이한준 등, 전계논문, p.405, 409.

55) 박명희·이성립, “부모자녀간 정보격차에 따른 의사소통, 갈등, 소비자 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007, 제42권, p.17.

56) 보건사회부,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12, p.11.

57) 박명희·이성립, 전계논문, p.7.

58) 김용학, 전계서, p.67. 손동원, 전계서, p.110.

〈표 4〉 의사결정단계별 인접 중앙성

주거이전 제안		정보탐색		영향력	
1 Farness	2 nCloseness	1 Farness	2 nCloseness	1 Farness	2 nCloseness
1. 남편 2. 자녀 3. 처가 4. 아내 5. 본가	4.0 4.0 4.0 5.0 5.0	3. 자녀 2. 아내 5. 처가 4. 본가 1. 남편	4.0 5.0 5.0 6.0 6.0	3. 자녀 4. 본가 1. 남편 2. 아내 5. 처가	4.0 5.0 5.0 6.0 6.0
	100.0 100.0 100.0 80.0 80.0		100.0 80.0 80.0 66.7 66.7		100.0 80.0 80.0 66.7 66.7

보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는 것이다.<sup>59)</sup> 주거이전 제안단계의 인접 중앙성은 남편, 처가가 아내와 본가보다 높다.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자녀, 아내 및 처가가 본가나 남편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주거이전결정의 영향력은 자녀, 본가 및 남편이 아내나 처가보다 높다. 이는 주거이전 제안단계에서 남편, 자녀 및 처가는 아내 및 본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정보, 권력, 영향력 등에 대한 확보와 접근성이 용이하다. 따라서 아내 및 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이전 제안을 한다. 주거정보 탐색단계에서는 자녀, 처가와 아내가 본가와 남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할 주거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최종 주거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자녀, 본가와 남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부모-손자녀의 동일체의식으로 자녀를 위해 남편과 양육보조자인 처가가 주거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의 중심인 아내와 손자녀 양육과 가사지원을 하는 처가가 자녀를 위한 주거

정보 탐색단계에서 인접 중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이전 결정단계에서는 조부모-부모-손자녀의 동일체의식으로 가족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녀의 인접 중앙성 비율이 가장 높고, 재산 또는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본가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의 중심인 남편의 인접 중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이전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의 인접 중앙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 3.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매개(사이) 중앙성

세 번째로 매개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이는 한 가족구성원이 가족구조내의 다른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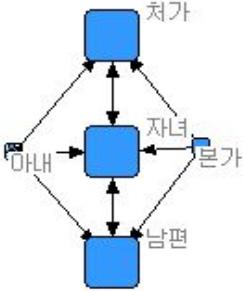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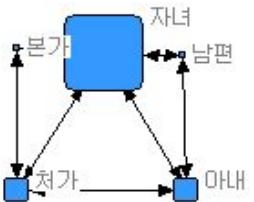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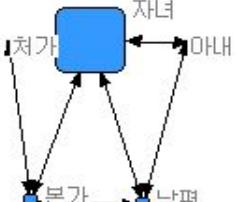
매개성 척도는 연결망에 의한 자원흐름의 통제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sup>61)</sup> 한 행위자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에 대한 실제적인

59) 손동원, 전계서, p.95, 101.

60) 김용학, 전계서, p.68, Hanneman, Robert A. and Mark Riddle, *op.cit.* p.67.

61) 장호, 전계논문, p.78, 손동원, 전계서, p.110.

〈표 5〉 의사결정단계별 매개 중앙성

주거이전 제안		정보탐색		영향력	
					
1	2	1	2	1	2
Between	nBetween	Between	nBetween	Between	nBetween
1. 남편 3. 자녀 5. 처가 2. 아내 4. 본가	0.333 5.556 0.333 5.556 0.000 0.000	3. 자녀 2. 아내 5. 처가 4. 본가 1. 남편	2.000 0.500 0.500 0.000 0.000	3. 자녀 4. 본가 1. 남편 2. 아내 5. 처가	2.000 0.500 0.500 0.000 0.000
1. 남편 3. 자녀 5. 처가 2. 아내 4. 본가	0.333 5.556 0.333 5.556 0.000 0.000	3. 자녀 2. 아내 5. 처가 4. 본가 1. 남편	2.000 0.500 0.500 0.000 0.000	3. 자녀 4. 본가 1. 남편 2. 아내 5. 처가	2.000 0.500 0.500 0.000 0.000

혹은 잠재적인 중재역할의 중요성이 클수록, 의사소통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은 그 만큼 커지게 되며 다른 행위자들의 이에 대한 의존 정도 커지게 된다.<sup>62)</sup>

주거이전 제안단계의 매개 중앙성을 보면 남편, 자녀, 처가가 가장 높다(5.6%). 주거이전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자녀가 가장 높고 (33.3%), 아내 및 처가가 다음으로 높다 (8.3%). 마지막으로 주거이전결정과 관련된 영향력은 자녀가 가장 높고(33.3%), 본가 및 남편이 그 다음으로 높다(8.3%).

이는 자녀의 매개 중앙성비율이 가장 높고,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의 중심인 아내와 손자녀 양육과 가사지원을 하는 처가가 자녀를 위한 주거정보 탐색단계에서 매개 중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이전 결정단계에서는 자녀가 다른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고 본가와 남편이 처가와 아내사이에 위치하면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처가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전 의사결정 단계별 가족구성원의 매개 중앙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 4.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 간 위세 중앙성

네 번째 위세 중앙성(Prestige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이는 연결된 가족구성원의 중앙성에 가중치를 중시한다. 강자와의 단 하나의 연결이 다른 여러 행위자와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세 중앙성의 척도는 자신의 연결정도 중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 행위자의 영향력을 합하여 결정한다.<sup>63)</sup> 즉 어떤 행위자의 높은 중심성만으로 그가 연결망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행위자들의 중심성이 높을 때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이다.<sup>64)</sup>

62) 손동원, 전계서, p.105.

63) 김용학, 전계서, p.69, 강정한·이선흥, “연결망 내에서 지위의존성 측정”, 현대사회와 문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제27호, p.108.

〈표 6〉 의사결정단계별 위세 중앙성

주거이전 제안	정보탐색	영향력
1 Eigenvec 2 nEigenvec	1 Eigenvec 2 nEigenvec	1 Eigenvec 2 nEigenvec
1. 남편 0.479 2. 아내 0.394 3. 자녀 0.479 4. 본가 0.394 5. 치가 0.479	1. 남편 0.351 2. 아내 0.470 3. 자녀 0.559 4. 본가 0.351 5. 치가 0.470	1. 남편 0.470 2. 아내 0.351 3. 자녀 0.559 4. 본가 0.470 5. 치가 0.351
67.773	49.574 66.462 79.059 49.574 66.462	66.462 49.574 79.059 66.462 49.574

위세 중앙성은 인접 중앙성과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sup>64)</sup> 주거이전 제안단계의 위세 중앙성을 보면 연결정도 중앙성과 인접 중앙성이 높은 남편, 자녀, 치가가 가장 높다(67.8%). 주거이전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자녀가 가장 높고(79.1%), 아내 및 치가가 다음으로 높다(66.5%). 마지막으로 주거이전결정과 관련된 영향력은 자녀가 가장 높고(79.1%), 본가 및 남편이 그 다음으로 높다(66.5%). 이는 주거이전 제안단계에서 남편, 자녀, 치가가 상호작용을 하여 위세 중앙성이 낮은 본가와 아내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거이전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전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인접 중앙성이 높아 위세 중앙성도 높은 자녀를 위하여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의 중심인 아내와 손자녀 양육과 가사지원을 하는 치가가 두 번째로 위세 중앙성이 높아 주거할 곳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전 결정단계에서도 조부모—부모—손자녀의 동일체의식으로 인접 중앙성이 높아 위세 중앙성도 높은 자녀를 위

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본가와 주택마련비용 부담의 중심인 남편의 위세 중앙성에 의하여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전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의 위세 중앙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상으로 주거이전 의사결정단계별 중앙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중앙성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구성원 간의 네트워크가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이다.<sup>65)</sup>

## V. 결론 및 시사점

서울시 아파트로 주거이전을 한 가구 중 결혼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전 결정시 의사결정단계별 가족구성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64) 강정한, 이선흥, 전계논문, p.105.

65) Hanneman, Robert A. and Mark Riddle, *op.cit.*, p.70.

66) 손동원, 전계서, pp.110~111.

그 결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남편 및 처가가 주거이전을 제안하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고려하여 주거이전 대상 주택을 아내 및 처가가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거이전 결정과 관련된 영향력은 본가와 남편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를 자녀교육과 자녀발전으로 보는 부모-자녀 동일체의식으로 자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의 중심인 아내와 손자녀 양육과 가사지원을 하는 처가가 거주할 주택을 탐색하되 경제적 지원과 주택마련은 본가 및 남편이 책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주택 마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및 아동보육 시설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점과 위의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주거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sup>67)</sup> 주거공급시 아파트 단지 내에 충분한 보육시설 공급과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 등의 신규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함께 주택수요를 유효수효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부

모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함께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주택만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의 영향력을 분석하되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과 다른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여 의사결정과정단계별로 가족구성원의 위치와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타킷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본 논문의 한계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주자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지방 아파트 거주자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간의 영향력의 차이 여부를 비교하지 못한 점에 있다. 또한 가족생애주기, 사회계층, 거주기간 등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이전과정에서의 가족구성원의 위치와 영향력의 차이점을 밝히지 못한 점도 또 하나의 한계이다. 이는 사회연결망분석이 한 사회체계 내에서 각 구성원이 갖는 위치와 그들의 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각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인 각 구성원들의 개별적 속성(Individual attributes)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기존의 분석방법과는 통계 속성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7) 박상학·박성래,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49집, p.272.

---

**参考文献**


---

- 강석후, “가족의 구매의사결정에서 성별역할관념론과 자원이론에 대한 연구”, 한국마케팅저널, 한국마케팅학회, 2001, 제3권 1호.
- 강정한 · 이선행, “연결망 내에서 지위 의존성 측정”, 현대사회와 문화,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08, 제27호.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
- 김동진 · 방경식 · 장희순,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의식구조 분석”,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2008, 제16권 제2호.
- 김미란 · 박영희 · 박은숙, “간호학 관점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동향”, 아동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 2010, 제16권 제4호.
- 김복순 · 장호찬 · 이소연, “가족여행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영향력”,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2005, 제29권 제2호.
- 김선태 · 송명규,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아파트 가격의 규모탄력성”,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4집.
-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2013.
- 김은정, “맞벌이가정 손자녀 양육지원 조모와 취업모 간 관계유형 및 관계의 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2013, 제40권.
- 김현주, “어머니와 자녀 간 자원교환과 관계 만족도: 노후 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한국여성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05, 제10권 4호.
- 김현주 · 이여봉,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자녀 교환관계 유형과 예측요인”,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2.
- 김현주 · 이선이 · 이여봉, “자녀의 성적이 어머니와 자녀의 교환관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제21권 제4호.
- 두경자 · 정혜선, “구매의사결정 과정시 가족참여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1, 제5권 1호.
- 마강래 · 안아림, “지역간 PIR 편차의 시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49집.
- 박명희 · 이성립, “부모 자녀 간 정보격차에 따른 의사소통, 갈등, 소비자 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007, 제42권 5호.
- 박종서, “가족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제199호.
- 박상학 · 박성래,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49집.
- 방경식 · 장희순,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2012.
- 방희정,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00, 제6권 3호.
- 박종서,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제199호.
- 보건복지부,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12.
- 성연동, “한국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2010.
- 신명일 · 김우식, “경제위기하에서 가족의 대처전략이 부부의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제12집.
- 유연지 · 조현주 · 권정해,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08, 제13권 4호.

- 이경혜, “사회변화와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부모·자녀건강학회, 2002, 제4권.
- 이한준·김경진·박종철, “대가족 제도에서 노부모의 구매영향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한국소비자학회, 2010, 제21권.
- 장광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족성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아파트거주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장호, “사회연결망분석의 전개과정 및 기본원리”, 언어정보,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997, 제1호.
- 정기원,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001, 제24권 1호.
- 정부균·김유경·최민섭, “가구유형별 구분에 의한 주택수요 예측”,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51집.
- 조광행, “부동산마케팅에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9, 제39집.
- 조병은·신화용,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 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1992, 제12권.
- 체신석·이은수·최승만,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외식 구매결정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영향력과 외식선택속성에 관한 연구—페밀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관광식음료경영연구, 한국관광식음료학회, 2006, 제17권 1호.
- 최혜지,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2004, 제24권 3호.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Deborah S. Levy · Christina Kwai-Choi Lee,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on housing purchase decisions”, *Journal of Property Investment & Finance*, 2004, Vol.22 No.4.
- ÉVA PÓLYA, “Purchas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oles within the family”, Szent István University Management and Business Administration Doctoral School, Theses of PhD Dissertation. 2012.
- Gurvinder S. Shergill · Harjit Sekhon · Min Zhao, “Parents' perception of teen's influence on family purchase decisions: A study of cultural assimil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2013, Vol. 25 Issue 1.
- Hanneman, Robert A. and Mark Riddle,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2005.
- Harry L. Davis · Benny P. Rigaux,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74, Volume 1 Issue 1.